

작지만 알찬 내용 담아 '선의 대중화' 앞당겨

한 때 읽기 쉬운 불서를 접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수많은 불서들이 출간돼 불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출판 문화의 발전에 있어 희생적인 '작은 손'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상업출판이 아닌 신행의 집집이를 주축적으로 범보시용 불서를 내놓는 사람들이 그 중 하나다.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성본(중국대 선학과 교수) 스님은 지난 99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좌선으로 초대>, <염불수행>, <집선수행>, <선불교의 이해>를 비롯해 최근 출간된 <선의 종도>까지 모두 7종 10만여권을 내놓아 '교학을 토대로 신행하자'는 새로운 신행풍토를 형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장점은 선의 이론에서부터 실수(實修)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쉽게 요점만을 간추려 적고 있다는 점이다.



책과 삶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내는 성본 스님

'좌선으로의 초대' 등 7종 10만여권 범보시 시리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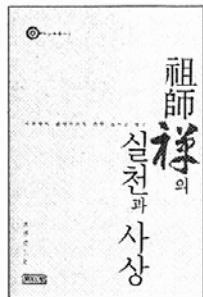
이 시리즈는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70%정도) 동국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전국의 승가대학과 군법당 등에 무료 범보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곧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범보시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를 판매하는 것은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책을 발간하기 위한 기금마련의 방편이다.

스님은 "교양대학이나 신학대학 등에서 교재로 사용하겠다는 사제가 늘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한다. 지금까지 출간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반응도가 높은 책은 첫 권 <좌선으로의 초대>와 <염불수행>이다. 특히 좌선과 좌선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선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좌선으로의 초대>는 2년 간 3만5천부(4쇄)를 출간했다.

스님은 올해부터 정각원장직을 그만뒀다. 하지만 현원장인 도업 스님과 협의하여 이 시리즈를 계속 출간한다는 방침이다. 성본 스님은 "올바른 신행은 확고한 교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선 관련 분야가 주종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분야와 필자도 다양화해 매년 2권 이상 50여권을 펴낼 생각이다. 물론 책의 내용도 모두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근 기자

육조 혜능과 그 문하의 선승들을 중심으로 중국 조사선의 '본질'을 파헤친 연구서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장경각)이 나왔다. 글쓴이는 '중국 조사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태완(부산대 철학과 강사) 씨. 그는 선불교의 종파와 종류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조사선 태동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어둠을 두드리는 주장자 소리'

유영숙 지음



겨레의 얼과 문화 뿌리 찾기

우리 문화 모태를 찾아서

"불교의 건축과 미술 등의 양식이 인도에서 전해진 불경에 기초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표현은 한민족의 전통이 적용됐다. 한국의 불교문화는 한문화(韓文化)에서 불교적 특색을 지닌 사랑방문화다."

해방 이후 첫 미국 유학생으로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구조공학을 전공한 건축가 조자용(1926~2000) 씨. 하지만 그는 건축가보다는 '우리 민족문화의 모태(母胎) 찾기'

조사선 본질 - "말끝에 단박 깨닫는다"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태완 지음

기존의 연구자들이 조사선의 출발을 마조와 석두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그는 혜능을 개창자로 마조와 석두를 완성자로 그 문하의 오가칠종까지를 전개로 보고 있다. 조사선의 시작을 혜능으로 본 이유는 마조와 석두에서 오가칠종까지 전개되는 선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정혜불이(定慧不二)의 불이법과, 선지식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言下便悟·말 끝에 곧 깨닫는다)가 혜능의 선법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혜능에서 시작하여 마조에 서 완성되고 그 문하에서 풍미한 중국 조사선의 본질을 실천과 사상 두 측면으로 나눠 고찰한다. 실천적 측면은 직지인심(直指人心)과 견성성불(見性成佛)이며, 사상적 측면은 심성관(心性觀)과 수증관(修證觀)이다.

이 가운데 견성성불 편에서는 조사선의 가장 큰 특징인 선문답을 통하여

견성을 추구하는 일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살피고, 견성 체험의 일화 가운데 마조의 경우를 대표적 모델로 선정하여 견성 체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조사선이 스승과 제자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통하여 이심전심을 실

조사선 혜능 개창 마조 완성

사상·실천 예리한 고찰 눈길

천하는 선법임을 강조한다. 또 수증관 편에서는 조사선의 어록과 <전등록>에 나타나는 선사들의 공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선에서의 공부방법, 학선수도(學禪修道)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고찰한다. 이와 함께 혜능의 수증관(修證觀)이 중국 선종의 사상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혜능에서 입제에 이르는 조사선의 가장 큰 특징인 선문답을 통하여



△조사선의 특징은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스승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깨침을 얻는 것이다.

고 있다.

특히 글쓴이가 역점을 기울이는 부분은 혜능과 그 문하가 이전의 점수선을 극복하고 새로이 행한 돈오선의 본질은 어떤 것이며, 어떤 점에서 점수선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오늘날의 한국 선종에서 행하는 돈오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맥락이 닿는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는 조사선을 다루는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적 안목을 가진 글쓴이가 조사선 어록에 두터운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값 1만8천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a.com)

법정 스님 산방수필 전집나온다

샘터사 '서있는 사람들' 등 9권 묶어

30여 년 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법정 스님이 책이 전집으로 출간된다.

샘터사는 최근 출간된 <서 있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1~2개월 간격으로 9권의 전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출판사측은 "초반기부터 현재까지의 글과 스님의 삶의 기록들이 낱알이 담겨 있어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업이다"고 전집 출간 의의를 밝혔다.

1970년대 개발 독재시대에 집필한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오는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에 관한 사색의 글이 담겨 있다. 지식인의 허상, 불신사회, 물질만능주의, 부도덕한 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는 오늘날에 다시 읽어도 그 메시지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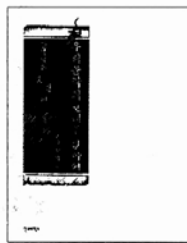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야만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다진인하우스
2	한국의 불교의례	정각	운주사
3	불여를 가을 겨울	법정, 류시화	이레
4	금강경 강의	혜거	보다스튜디오
5	참회, 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화	법공양
7	나는 누구인가	법나대량	청하
8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상섭	컬처라인
9	선방일기	지허	여시아문
10	산사에서 부처는 편지	명정	좋은날

도서 안내: (02)737-0695

이 책은, 글쓴이가 민족신앙의 모태인 삼신신앙을 찾아 전국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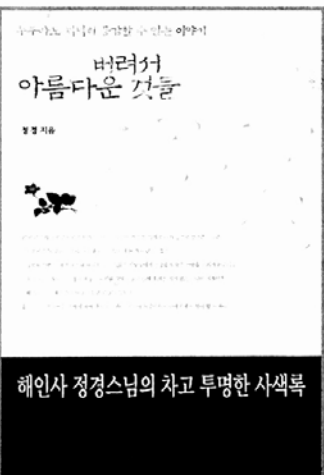
특히 서민에 속의 정체를 파헤치거나, 불교문화 속에 깃든 우리 겨레의 혼을 읽어내는 글쓴이의 체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한다. 값 1만 원.

김종근 기자

세상에는 버려야만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해·인·사·정·경·스·님·의·차·고·투·명·한·사·색·록

버려서 아름다운 것들



"보이는 것, 보는 것을 잘 봐야 내 몸에 행복을 담지."

복잡한 생활, 어지러운 정도의 관습들을 꿰뚫는 맑은 한 가닥 선이 두 눈과 정신을 관통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한

행복의 의미와 만나게 된다.

하나만 더 가지려는 것, 하나만 더 구하려는

그 탐욕을 놓아버리는 순간이라야

우리는 우리를 행복의 테두리에 가둘 수 있게 된다.

하루 한끼 생식으로 20여 년 수행에만 정진하고 있는

정경스님의 쇠처럼 단련된 언어가 '버리는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해인사 정경스님의 차고 투명한 사색록

정경스님 지음, 신국판

서울시 종로구 관동동 198-16 남도BD 302호
전화 (02)720-3211 · 팩스(02)720-0312
http://www.hnp.co.kr · e-mail · hanam@hnp.co.kr



"민기지 않았지만 나는 하루에 3천배를 1,000일간 하여 300만배를 하고 하루 만배씩 100일간 하여 100만배를 하였으며 지금도 하루 최소 108배를 3회 이상 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



정경 스님 지음
값 6,500원

하는 일이 막히고 잘 안풀리지는 않습니까?
몸이 허약하고 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꿈을 자주 꾸고 악몽에 시달려 잠 못 이루십니까?
뜻을 세워 무언가를 꼭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꼭 이 책을 읽고 절을 해 보십시오!!

"절을 氣지게 잘하는 법"은 반드시
여러분께 속 시원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절수련특강

- 일자 / 3월 21, 28일 / 4월 18일, 25일 (수)
- 시간 / 15:30~17:30
- 동참비 / 40,000원 (2회), 선착순 10명
- 장소 / 마야 문화원
- 접수문의 / (02)722-1050 · 722-0293

도서출판 **붓다의 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象 갤러리 405호

· 전화 : (02)722-0292, 722-0293

· E-mail : bdland@chollian.net

■ 군부대, 교도소, 영가친도, 49세 등
범보시용으로 증정합니다. (범보시는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